

2021 12 Vol. 378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1년 10월 28일 오후 7시(한국시각)에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겸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로 임명하셨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며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택 대주교님 문장 해설

1. 갈색 주교 모자와 녹색의 4단 수실 그리고 가운데 목장

갈색 주교 모자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된) 4단의 수실, 그리고 목장(牧杖)은 전통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인 대주교직을 표상합니다. 모자의 색인 갈색은 겸손과 가난을 상징하는 '땅의 색'이기도 하며, 탁발 수도회(Ordo mendicantium)의 전통적인 색이기도 합니다. 곧 겸손과 가난을 머리에 이고 항상 겸손의 자세로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2. 중앙의 방패

방패는 교회를 수호하는 주교의 직무를 상징하는데, 방패 안 갈색의 형상은 한편으로 보면 산의 형상이요, 다른 편으로 보면 길을 원근법으로 표현한 형상이기도 합니다.

갈색 <산의 형상>으로는 '하느님과의 합일'을 향한 우리 신앙의 여정을 표상하는 '가르멜 산길'이요, 또 한편 길의 형상으로는 나그네 길, 곧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방패 안 흰 별과 푸른색 밀 띠

별은 신앙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성모님의 표상이고, 밀의 푸른색 띠는 한편으로는 바다의 색으로서 '바다의 별' 성모님을 상징하는 흰 별의 밑에서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4. 방패 위 십자가

우리 구원의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옴을 보여 주는데,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구원의 빛(노란색 빛)은 신앙의 여정이자 '가르멜 산길' 위에서 우리의 전체 여정을 비춰 주고 있음을 표상합니다.

CONTENTS

- 02 경축/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 대교구
교구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 03 차례
- 04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회상
- 05 경축/ 김순상(베로니카)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 대교구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07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본상 수상
- 09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밤새는 목동들아
- 11 웅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영혼의 작은 하늘
- 12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59)
- 15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0)
- 20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2)
- 25 성소/ 성소 위원회
늦게 피는 꽃
- 26 선교/ 권상균(아우구스티노) 신부
돌아온 탕자와 장자궁자長者窮子 이야기
- 31 회원의 글/ 이은미(카타리나)
예수님 저는 안 될까요?
- 32 공동체 이야기
청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이야기
- 35 회원의 글/ 장경희(뜨리피나)
사랑이신 주님!
- 36 회원의 글/ 박계용(도미니카)
내가 널 사랑하리라
- 38 회원의 글/ 반숙자(벨라뎃다)
아버지와 아들
- 40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박지현(요셉피나)
나를 지키는 문, 경계선!
- 42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3)
2022년 2월 영적나눔
- 44 수도회 소식
- 46 재속회 소식
- 50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에서 온 편지
- 51 회원의 글/ 이정미(헬레나)
성탄
- 52 그림단상

표지그림

GAUDETE 기뻐하여라(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분홍빛)의 표현 * 대림 3주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8호 (2021 12.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회 상



눈에 보이는 산과 들
하늘과 구름
귀가 듣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들이 기쁘다

공기 냄새와 혀에 닿는 맛들
몸으로 오는 것들이 기쁘다
지나가는 웃음과
들려오는 말소리들도 기쁘다

모든 것들이 기쁨이다

* 경축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서울 대교구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으로 답답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반갑게 들려온 뉴스는 우리 수도회와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식이기에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마르코 1,16~20)

우리의 자랑이신 베드로 신부님은 2006년 6월 18일 월모임 강의에서 어부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신부님의 강의는 15년이 지났지만 코로나로 폐해진 일상의 삶에서 다시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을 통하

여 우리도 가르멜 성소에 부르심을 음미해 보아야 한다. 각자 가르멜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영적독서를 통해서나 각각 다른 계기로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부르신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느낀 당시뿐만 아니라 일상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부르심은 매일 생활 환경 안에서 하느님을 음미하고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일상의 분주함이나 소란함으로 인해 느끼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즉시,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에 응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무엇을 향해가고 있는가?”

이 가을에 솜털이 많은 열은 잿빛 꽃을 피우는 갈대. 우리 수도회의 1,2,3회 공동체를, 그리고 수도자들의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덕목을 갈대 묶음에 비유해 봅니다.

갈대 세 묶음을 빈 땅에 세우려 할 때는 서로서로 의지해야 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기대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비유를 에둘러 말한 것이지요. 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범한 말 속에 비범함이 녹아 있는 것. 세속에서 늘 중심을 못 잡고 비틀대는 재속회원을 거두어 주시는 수사님, 수녀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가

르멜이 빛나고 가르멜의 빛 안으로 저희들 역시 주님을 만나고자 재빠르게 따라나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시지 않은 대주교님으로 서울 대교구 교구장이 되신 일은 우연한 기회에 행운처럼 온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오신 신부님의 노고를 하느님께서 손 잡아 주신 축복입니다. 교구장님! 이 나라의 지도자인 어르신으로 자리매김하시고, 받으신 그 축복의 마음으로 저희 신자들과 혼란 속의 국민들 모두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로서로 따뜻한 눈빛으로 밤사이의 안부를 물어주는 우리 신자들은 서로에게 플러스인인이 됩니다. 이렇듯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로움의 관계 안에서, 서울 대교구 대주교님과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이 올곧은 길잡이로, 목자로서 살아가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살얼음, 찬 시절 견뎌냈기에 오늘의 따사로운 햇볕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수도회의 신부님들께도 공정의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교회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1년 사베리오 칸니스트라 총장님을 모시고 내한 한 정순택 베드로 신부님(당시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본부 부총장)



2014년 주교 서품식에서 재속회원들과 함께 한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본상 수상 소식

지난 11월 4일 (목) 오후 4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6층 성당에서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인천 수도원의 윤주현 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학술상 본상을 공동수상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해 관계자와 수상자 이외에 참석자는 극히 제한되었으며, ‘가톨릭신문 유튜브’ 채널로 한국 교회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수상식은 인터넷을 통해 ‘가톨릭신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상 본상 공동수상자들 (왼쪽부터 박규홍 신부, 유승록 신부, 이재룡 신부, 조환길 대주교, 조규만 주교, 윤주현 신부, 안소근 수녀, 이건 팀장)



윤주현 신부와 어머니



본상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는 윤주현 신부

학술상 본상 수상 소감

『신학사 1~4』 시리즈 번역을 시작하신 조규만 주교님과 오랫동안 가톨릭 문화총서 기획위원회를 이끄신 이재룡 신부님의 배려로, 본상 수상자 7명을 대표해서 수상 소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사 시리즈를 번역한 저희 7명의 학자들에게 한국 가톨릭 학술상 본상을 선사해주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올해의 본상으로 선정해주신 학술상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고 고된 학문의 여정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경하올 몬던 신부님의 『신학사 1~4』 시리즈는 지금까지 한국 가톨릭 신학계에 커다란 공백으로 남아 있던 신학사 분야에 학문적인 기준점을 제시하며 신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가톨릭 신학의 발전을 위해 염려하며 헌신하고 계신 학계의 여러 어르신들 비롯해서 저 역시 신학을 연구하며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 가톨릭 신학계가 축적한 교회의 학문적, 영적 자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각 교구의 신학교에서 사제를 양성하는 일부터 사목을 비롯해 한국적 토양을 바탕으로 고유한 한국적 신학을 토착화하고 꽃피우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은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대 신학자들께서 혼신을 기울여 만들어서 전해주시는 수많은 신앙의 보화를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학사 1~4』 시리즈는 한국 가톨릭 신학계가 당면한 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서 학문적 소명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한국 가톨릭 신학자들의 오랜 수고의 결실입니다. 한국 가톨릭 신학계는 이 『신학사 1~4』 시리즈와 더불어 모든 신학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신학적 계승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모든 신학도들은 시대마다 교회에 학문적, 영적 수액(髓液)을 전해주는 가운데 교회를 쇠신한 모든 위대한 석학들의 생애와 사상의 주요 골자, 그리고 그분들의 주요 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신앙의 진리가 어느 한 시대와 장소에 갇혀 있지 않고, 시대마다 깨어있는 많은 선각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새로 자라나는 한국의 젊은 신학도들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 7명이 마련한 이 ‘신학의 항해 지도’를 벗삼아 현재와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학문적, 영적 자산을 축적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신학의 역사의 한 자락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한국적 신학을 찬란히 기록할 그 날을 꿈꿔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작품이 한국 교회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선각자로서 저희 역자들에게 함께 번역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규만 주교님과 이재룡 신부님께 다른 공역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본상 수상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 출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신 현 가톨릭출판사 사장이신 김대영 신부님을 비롯해 역대 사장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상 수상자 7명을 대표해서
윤주현 신부, O.C.D.

* 성인의 시 *



밤새는 목동들이 Pastores que velais

김석영 (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양떼를 지키노라
밤을 새는 목동들이
보라, 한 양이 나시는구나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2. 가난 속에 친히 나시니
그분을 지킬 차비를 하라
서로 즐겨도 못 본채로
행여 앓아갈세라
<힐>아, 목장을 이리 다오
내 결단코 놓침이 없이
고양(羔羊)을 앓기지 않으리라
높으신 하느님이 그 아니시나
3. 반가운 듯 슬퍼서 어리둥절
이 내 거동 넌 보느냐
오늘 나신 어른이 하느님이라면
어이하여 죽을 수 있단 말이나
아, 그 또한 사람이시라고
목숨은 장중(掌中)에 있는게로고
보라, 이분이 어리신 양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란다
4. 모를 노릇이로다 왜들 비는지
어느덧 그에게 싸움 걸 사람들이
내사 정말 <힐>아 저 어른이
본 나라로 가심이 나을 상 싶다
우리사 죄 있어 귀양 살아도
온갖 복(福) 당신 손에 들어 있거늘
고생을 겪으러 오시었다니
높으나 높으신 이 하느님이
5. 너 보기엔 그 고생이 적을 듯 하나
슬픈지고 누구 있어 우리 도우리
남이 하는 고생은 보이지 않고
이 이야 말로 슬한 양떼의 목자
그 영광 얻으심을 너 모르느냐
아무래도 너무나 너무나 한 일
높으신 하느님이 죽으시다니

해설

교회 전례력에 따라 이어지는 대림시기와 성탄시기에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특별히 묵상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이번 달과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성녀 데레사가 쓴 많은 시(詩)들 중에서 <성탄 송가> 라는 큰 주제 아래 몇 편의 시들을 소개하려 한다.

성녀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수도생활 중에서 기도, 특히 묵상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人性)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의 집중을 통한 의식적인 고찰을 꾸준히 간직하여 놓치지 말기를 당부하셨는데, 특히 구세주의 강생을 주제로 한 이들 몇몇 시들 중에 그 마음결이 두드러지게 드러남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에서 성녀의 생각과 마음은 그 신비로운 성탄날 밤의 베들레헴 마구간 주변으로 다가가서 마치 어릴 적 친구나 종들에게 하듯이 스스럼없이 말하며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자신의 감격과 그 신비로운 순간의 벅차고 애뜻한 심정을 누구와 대화하듯 토로한다.

1절에서 작가의 시선은 2천 년 전의 팔레스티나의 한 벽촌인 베들레헴 들판으로 눈을 돌려 거기서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보라, 한 양이 나시는구나/ 높으신 하느님 아드님이> 하고 말을 건넨다. 성녀는 이미 여기서 인류의 죄를 보속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를 두고 목자들이 잘 아는 한 마리의 어린양이라고 말한다.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모든 것이 아쉬운 가난한 처지에 있으니 목자들이 도

와드려야 하고 특히 금방 태어난 어린양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떼의 공격을 막아 잘 보호해 드려야 하니, 성녀는 다급한 마음에서 자신에게도 목자들의 지팡이를 빌려 달라고 말한다. 여기에 나오는 힐(Gil)이라는 이름은 목동들의 전통대로 장난으로 누구에게 지어서 부르는 별명으로 그 뜻은 주의력이 부족한 자, 멍청이, 멍꽂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절에서 성녀는 갓 태어난 하느님의 아드님 앞에서 허둥대는 자신의 한심한 모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태어나신 어른이 하느님이라면/ 어이 죽으실 수 있단 말이냐> 하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구심을 상기시키면서, 그분은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죽을 운명을 지니셨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한다.

4절에서 같은 하느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비판하는데, 이 시를 쓰는 성녀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강생을 두고, 차라리 하늘 나라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까지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생하실 하느님의 희생을 마음 아파한다.

마지막 5절에서 두 번째 부르는 힐(Gil-아둔한 사람)을 대신하는 독자에게 하소연하듯 토로한다. <너 보기엔 그 고생이 작을 듯하나/ ... 중략 ... / 그 영광 얻으심을 너 모르느냐> 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각성시키려 애쓰면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러 오신 하느님의 사랑은 <아무래도 너무나 너무나>이라고 강조하며 푸념하듯 끝맺는다.*

* 옹달샘 *

영혼의 작은 하늘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계시므로, “우리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하느님을 모신 ‘하느님의 집’ ” (성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임금님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 “영혼의 작은 하늘” (완덕 28, 5)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스승이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4, 7)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선(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가까이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방법이었습니다.” (자 4, 7)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이 계신 성전(聖殿)” (1코린 3.16), “성령이 계신 성전” (1코린 6.19),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 (2코린 6.16)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실격)한 것입니다.” (2코린, 13, 5)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도 낙제생(실격생)이셨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전에도 잘 알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어떤분이 계신지

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작 깨달았을 것 같으면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만 몇 번이라도 당신을 모시고 대접해 드렸을 걸” (완덕 28, 11)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이사 49, 16;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나에게서 단 15분 동안만 눈을 떼지 말아다오.” (성녀 미리암에게) 하고 애타게 청하셨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키시어 안전하게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눈길을 돌리는 것뿐” (완덕 26.3)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害)는 주님께 눈을 두지 않는 데에서 옵니다.” (완덕 16. 11) 3분 이상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 신앙과 사랑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5.5)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늘 주님께 매달리고 청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어떤 일에서든지(특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 청해야(마태 7, 7)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해 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다. 라파엘 체카 신부는 멕시코에서 가르멜 수도원들을 구하고 가르멜 수도회의 퇴출을 막기 위해 1899년 5월 29일 스페인의 카스티야 관구의 관구장인 무염시태의 페르난도(Fernando de la Inmaculada) 신부와 협약을 맺었다. 그에 따르면, 카스티야 관구의 회원들은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멕시코의 가르멜 수도원들을 돌보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카스티야 관구의 회원들이 멕시코로 파견되어 멕시코 관구 회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존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수도원에 분리되어 살아갔다. 그 후, 스페인의 아라곤 발렌시아 관구의 회원들도 멕시코 관구에 진출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실라오 수도원, 파추카 수도원, 토레온 수도원. 이는 당시 맨발 가르멜의 총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설립된 것이다.

1909년 12월 18일 수도회의 총장인 성심의 에제키엘(Ezequiel del Sagrado Corazón) 신부는 멕시코 지부장의 동의 아래 멕시코의 모든 수도원을 아라곤 발렌시아 관구와 카탈루냐 관구에 위임했다. 그러나 1914년 베누스티아노 카란사(Venustiano Carranza) 장군에 의해 주도된 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수도회 복원 과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스페인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멕시코를 떠나야 했다. 카란사에 의한 교회 박해가 끝나고 멕시코에 다시금 평화가 도래했다. 이에 약간의 멕시코 출신 가르멜 회원들은 버려진 수도원과 성당을 돌보며 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 지부는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스페인의 아라곤 발렌시아 관구의 회원들도 멕시코에 합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26년 다시 박해가 일어나고 말았다. 당시 박해를 주도한 인물은 대통령이던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Plutarco Elias Calles)로, 그는 반

가톨릭적인 노선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개혁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 가르멜 회원들은 추방되었으며 그간 진행되던 복원 작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¹⁾

그 후, 멕시코의 상황이 안정되자 멕시코 가르멜 회원들 사이에는 멕시코에 자주적인 가르멜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 가르멜은 점차 복원되고 성장해갔다. 결국, 멕시코는 1932년에 아라곤 발렌시아 관구로부터 분리되어 총본부의 총평의회 직할로 들어갔다. 총평의회는 멕시코 가르멜 회원들에게 콜레지오(colegio)와 수련소를 설립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당시 총장이던 실베리오(Silverio) 신부는 멕시코 가르멜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본부에서는 1948년 11월 22일 멕시코 가르멜을 준관구로 승격시켰다. 당시 멕시코에는 48명의 회원에 9개의 수도원이 있었다. 1960년에는 아나스타시오(Anastasio) 총장이 멕시코를 방문했으며, 이를 토대로 멕시코 가르멜을 관구로 승격시켰다.

현재 멕시코에는 100여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하나의 관구가 자리하고 있다. 회원들은 모두 멕시코인으로, 이들은 영성 센터를 설립해서 멕시코 교회에 영성을 보급하는 가운데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피정의 집과 기도의 집을 비롯해 출판사 그리고 성당을 운영하며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멕시코 가르멜 회원들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수도원과 성당 가운데 상당수를 되찾았다. 멕시코 교회의 역사에서 가르멜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1618년 당시 아직 성녀 데레사가 복녀의 지위에 있을 때, 데레사는 멕시코 대교구의 수호자로 선포된 적이 있다.

1) 이 시기에 멕시코에는 25명의 가르멜 회원이 있었고, 그 중에 4명만 멕시코인이었다.

3. 페루 총독부에서 맨발 가르멜(1687-1705)

초창기 스페인 가르멜 회원들이 멕시코에 진출해서 수도원들을 설립하고 복음화에 기여하며 가르멜 영성을 전하는 데 성공하자, 스페인의 가르멜 장상들은 남아메리카에서 수도회를 확장하려 시도했다. 이미 멕시코에 안착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원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남아메리카 선교를 시작했다. 1682-1688년까지 스페인 맨발 가르멜 총장을 지낸 콘셉시온의 후안(Juan de la Concepción) 신부는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사도적인 열정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남아메리카에서 맨발 가르멜을 확장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그 지역에는 이미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했지만, 수사들은 아직 진출하지 않던 상태였다.

더욱이, 페루 총독부는 맨발 가르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성녀 데레사의 친형제 가운데 7명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신대륙으로 떠나 페루 지역에 정착했으며, 그 가운데 여러 명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녀의 가장 가까운 형제 가운데 하나인 돈 로렌소(Lorenzo)는 키토(Quito)에서 성녀에게 돈을 보내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을 건립하는데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돈 로렌소의 딸인 데레시타(Teresita)는 남미의 첫 번째 맨발 가르멜 수녀이기도 했다.

당시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장상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르멜의 확장을 위해 1682년 두 명의 회원을 멕시코로 파견했다. 둘 가운데 한 사람은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한 사람인 십자가의 마르틴(Martin de la Cruz) 신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들이 파견된 목적은 그곳에 수도원들을 설립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마르틴 신부는 페루

총독부 관할 지역을 여행한 후, 1685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귀환해서 그간 수집한 정보를 수도회 장상들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마르틴 신부의 보고를 토대로 신대륙 총독부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허락을 요청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당시 이미 페루 총독부에는 8개의 맨발 가르멜 수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대륙 총독부는 이러한 그들의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왜냐하면, 1626년 10월 27일자로 펠리페 4세 국왕에 의해 공포된 왕의 칙서에 따르면 신대륙 지역에서의 새로운 수도원들의 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수도원들의 설립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르멜 회원들은 이러한 대답에 좌절하지 않고,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길을 모색했다. 국왕이 바뀌고 난 후, 새로운 국왕인 카를로스 2세가 들어서자, 그들은 국왕의 고해신부인 바요나(Bayona)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를 들은 바요나 신부는, 국왕이 맨발 가르멜의 남아메리카 진출과 새로운 수도원 창립에 대한 자문을 자신에게 구하자, 1626년에 공포된 관련 법안은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카를로스 2세는 자신의 권한으로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 남아메리카에 진출하고 수도원들을 설립하도록 허락을 주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0)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세 번째 시도

1893년 6월 말에 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막 서른 살이 된 레오니는 자신의 성소 실현을 위해 수녀원에 머물 수 있는지 원장 수녀에게 물어보았다. 레오니의 후견인이었던 게령 씨는 허락을 주었다. 셀린은 그 점에 대해 깜짝 놀라고 말았다. 7월 3일에 그녀는 세 명의 가르멜 수녀원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외삼촌이 레오니 언니가 방문회 수녀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 축하해 주셨어. 외삼촌은 심지어 레오니 언니에게 언니의 부제가 아빠의 삶에 남겨 놓을지 모르는 간극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거야. 왜냐하면 외삼촌과 외숙모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없는 아빠의 삶을 편안하게 돌보아 드릴 수 있고, 가능한 한 많이 레오니 언니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런 말에 대해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난 외삼촌이 얼마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곤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레오니 언니의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한꺼번에 치워지고 말았어.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선 레오니 언니가 타고 있는 작은 보트의 키 손잡이에다가 당신 손을 얹어 두고 계시다고 확신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오, 나의 사랑하는 언니동생들, 외삼촌 편지를 읽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나버렸는지 언니동생들이 알았더라면! 그 편지는 희생에 대한 마지막 봉인인 피앗(fiat)¹⁾이었지. 난 목 놓아 울었어. 그리고 한동안 내 마음이 무거웠지. 난 불운한 동료인 레오니 언니가 날 저버렸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 이제 내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남아있질 않아. 내 주변 어디에나 그저 공허함만 있을 뿐이야. 나 자신이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조각나버린 파편이라고 생각할 땐, 어지러운 정도의 비통함으로 가득 차버려. 사는 것이 너무 슬픈 것 같아. 아주 끔찍하게 슬퍼. 나의 가없는 레오니 언니와 내가 함께 역할 분담했던 모든 것이 나한테로 되돌아오고 말았어.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아픔을 예리하게 느끼도록 말이야. 난 내 영혼 속에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어.

실망과 혼란 중에 있는 셀린을 돕기 위해, 데레사는 이 시기 동안 매주 셀린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자기 영혼의 메아리”인 동생 수녀의 말들을 통해, 셀린은 굳건해졌던 것이다.

1) 라틴어 ‘피앗(Fiat)’의 뜻은 ‘이루어지다’이며, 루카 복음 1장 38절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라는 성모님의 응답에서처럼 순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 통의 편지

데레사는 레오니 언니를 잊지 않고 있었다. 1893년 8월에 쓴 편지에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 언니의 작은 데레사가 언니를 잊어버렸을까 봐 두려운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 점에 대해 언넨 날 너무 잘 알잖아. 사랑하는 언니, 하느님께서 언니에게 배부셨던 은총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향해 얼마나 많은 감사기도를 봉헌했는지 언니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언니가 했던 기도들을 들어주셨잖아. 예수님께서서는 언니의 인내심을 시험하셨지만, 결국 당신 비둘기의 탄원에 감동받으셨던 거지. 그분께서 거룩한 손을 내미셔서 당신 신부를 당신 마음속으로, 당신 사랑의 바로 그 장막 안으로 끌어당기셨던 거야.

이모가 했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마가렛 페어리 복녀께서 구해주셨던 바로 그 아이가 방문회에 입회했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정배가 될 거야. 확실히 내 기쁨은 전부 영적인 것이 되고 말겠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 이제부터 지상에서 다시는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를 보지 못하고, 언니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을 언니에게 털어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내가 얼마나 언니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언넨 알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이해할 테지. 그렇게 언니의 기쁨을 나누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라. 하지만 그런 희생이 없다면, 수도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일상의 작은 십자가들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기쁨인 거야. 왜냐하면 그런 작은 십자가들을 통해서 좋으신 우리 스승님께서 보내시는 더 큰 십자가들을 마음으로 부터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언니, 언니의 기도 중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언니와 일치하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가르멜 수녀를 잊지 말아줘.

데레사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필체로 적은 이러한 장문의 편지는, 폴린이 데레사가 쓴 글을 가로질러 적어놓은 다음의 몇 줄로 마무리되고 있다. “작은 동생 레오니, 너한테 곧 편지할게. 한동안은 네 동생이자 엄마가 너한테 가장 애정 넘치는 생각들을 써 보낼 거야.”

레오니의 답장

8월 27일에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데레사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했다.

사랑하는 작은 데레사, 네 편지로 인해 난 정말 기뻐한다. 내가 얼마나 네가 쓴 편지를 바라고 있었는지 데레사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난 나를 방주의 작은 비둘기에 비유했지. 그래서 난 그 비둘기에 대해 많이 생각했단다. 왜냐하면 사실 그 비둘기가 내 삶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난 또한 나 자신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 왜냐하면 난 다시 한번 되돌아왔잖아. 나 자신을 예수님 두 팔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의 성심 안으로

내어 던지기 위해서 말이지.

내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기일이야. 어머니 저 위에서 우릴 지켜보시면서 우릴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난 확신해. 어머니께선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돌보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셸린을 가장 사랑스럽게 보호해주고 계신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데레사, 난 너와 이별해야만 해. 아니,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성심 안에 우린 모두 하나야. 이 짧은 생애뿐 아니라 모든 영원한 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애정이 깃든 하나의 사랑만 있을 수 있겠지.

세심증 경향이 있던 레오니가, 셸린 혼자서만 아버지를 돌보게끔 남겨두고 떠나왔다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던 것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위의 편지에서, 레오니는 셸린이 자기를 희생한 것에 대해 정말 칭찬하면서 겸손하게 셸린을 자기 자신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셸린은 1893년 8월 18일 라 뤼스로부터 되돌아오고 나서야 칸으로 자기 언니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6월 24일 레오니가 수녀원에 입회한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데레사가 레오니를 격려하다

1893년 10월 17일에, 레오니는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한 수녀원 성당 축성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방문회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두 배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수녀가 (규칙의)

엄격한 준수에 크게 비중을 두는 바람에, 그러한 레오니의 선한 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되고 말았다.

레오니는 가르멜의 언니 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되풀이해서 읽었으며, 그 편지들을 통해 끊임없이 용기를 얻고 견디어냈다. 1893년 11월 5일에 데레사는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 언니가 행복하게 지낸다니 나도 행복해. 언니가 보낸 사랑스러운 편지들을 받아보고 정말 기뻐. 의심할 여지없이, 언니 정확히 하느님께서 언니가 있기 바라시는 바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거룩한 사모 축일을 준비하도록 했던 멋진 피정이 막 끝났어. 훌륭하신 신부님께서 특히 예수님과의 합일과 우리 성소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해주셨지. 그분은 우리에게 수도생활의 모든 이점, 특히 관상생활의 이점을 제시하셨어. 그 신부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 하나를 드셨는데, 난 그 비유가 정말 마음에 들었지. “시골에 있는 참나무들을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 나무들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그 나무들은 가지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내지요. 그 어떤 것도 그 가지들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참나무들은 절대로 어떤 상당한 높이까지 자라지 못하겠지요. 대조적으로, 숲에서 자라나는 참나무들을 보세요. 그 나무들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단지 위로부터 오는 빛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나무들의 몸통은 키 크게 성장하기 위해 나무가 필요로 하는 수액을 얻으려고

모든 구불구불한 가지들을 자라나게 만들 기회가 절대 없는 거예요. 숲의 참나무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지요. 그래서 하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나무는 빠른 시간 안에 상당한 높이까지 도달하는 거지요. 수도생활에 있어서 영혼은 숲의 그 어린 참나무처럼 규칙으로 인해 사방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숲의 나무들로 인해 제약받고,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고 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영혼은 단지 그곳에만 눈길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 방향으로, 영혼이 도를 넘을까 두려워할 어떤 한계도 없답니다.”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난 언니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새겨들을 거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영혼의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우리 마음이 영원한 것에 몰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레오니가 수도복을 입다

1894년 4월 6일, 방문회 성당에서 레오니는 위고냉 바이외 주교가 집전한 거룩한 예식 중에 수도복을 착복했다. 셸린과 게렝 가족들이 참석했다. 그 새로운 방문회 수녀(레오니)는 데레사 도시페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그 수도명은 동생(데레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레오니는 동생의 믿음과 겸손함을 닮고 싶어 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이모, 마리 도시페 수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마리 도시페 수녀는 레오니가 생활방식을 개선하고, 수도 성소를 받아들이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다. 예식을 위해, 레오니는 순백의 공단으로 만든 신부 드레스를 입고 오렌지색 꽃으로 엮은 화관을 썼다. 예식 후에 그녀는 신부 의상을 벗고, 미사를 위해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가대소로 되돌아왔다.

원장인 마리 드 살 르프랑소와가 수련자들을 담당했다. 그녀는 방문회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그렇게 융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청원자들이 수녀회를 떠나고 말았다. 원장은 레오니에게도 엄격했다. 레오니는 용감하게 굴욕감과 영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했다. 밤낮으로 쓰고 있어야만 했던 머릿수건 때문에 습진이 재발했던 것이다. 습진은 레오니 머리 전체에 퍼졌으며 끔찍하게 가려웠다.

1894년 3월에 가르멜 수녀들이 레오니가 곧 수도복을 착복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데레사는 레오니에게 장문의 편지 한 통을 써 보냈다. 이번에 데레사의 필체는 비스듬히 기울어지기보다는 수직으로 똑바웠다. 왜냐하면 폴린, 예수의 아녜스 원장이 마침내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글 쓰는 방식을 중단할 허락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단정된 느낌을 주면서도 데레사의 개성이 편지에 훨씬 잘 표현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 언니가 곧 수도복을 착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뻐. 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난 알아. 그리고 언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고. 사랑하는 작은 언니, 하느님께서 언니의 노력에 얼마나 잘 보답해주셨는지! 난 언니가 거룩한 방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집건

실에서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 기억하고 있어. 언니가 늘 우리 중에 마지막이었고, 정말 조출한 예식으로 수도복을 착용했다는 사실은 언니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언니가 찾았던 분은 예수님뿐이었고, 언닌 그분을 위해 모든 위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어느 누구의 관대함도 하느님의 관대하심에 비할 수 없지.” 그렇게 그분께서는 언니에게서 당신 신부가 되기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약혼자가 되는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예수님께서서는 아가서의 신부에게 하시듯 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걸렸다고²⁾...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 주오³⁾... 내게 문을 열어 주오, 나의 누이, 나의 애인, 나의 비둘기, 나의 티없는 이여!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채는 밤이슬로 흠뻑 젖었다고⁴⁾” 오랫동안, 언닌 예수님께서서 언니에게 오시기를 갈망했지. 아가서에서 신부가 이야기하듯 언닌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야. “누가 나에게 허락해줄까요, 내 사랑, 당신을 홀로 밖에서 찾아 입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도 날 경멸하지 않도록 말이에요.”⁵⁾

(다음 호에 계속)

우리는 하느님이라 부르는 절대신비를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은 숨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 성 요한은 『영적찬가』 제 1노래 해설에서 숨어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영혼의 중심으로 숨으라고 권유합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 (요한1서 4장16절)입니다. 이 신적 사랑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없으며 전후좌우 또는 시간으로 분리되지 않는 전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랑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새로운 매듭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성모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김광서 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2) 아가 2,11
3) 아가 2,10
4) 아가 5,2
5) 아가 8,1 참조.

*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32)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제23장

성녀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됨
신비적인 체험이 성장함

이 부분부터 성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그 이전에 성녀는 10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중단한 바 있다. 거기서 성녀는 자신이 신비적인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사실에 대해 암시했다. 이때는 1554년 초 무렵으로 성녀의 나이 39살 때 일이다.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해, 몇 달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풍경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내적인 풍경의 변화, 즉 저자 자신의 기도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서로 극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 10,1: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을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여러 번 체험하곤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곁에 머물기 위해 그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서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느님 현존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 그분이 제 안에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 안에 온전히 잠겨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 23,2.3: “제가 조금씩 위험스런 기회를 피하고 보다 많이 기도에 전념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은 아주 일상적으로 제게 고요의 기도를 허락하셨

으며, 오래 지속되는 합일의 기도도 아주 자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감미로움과 부드러움이 엄청났으며, 수없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그게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아주 큰 확신을, 특히 기도 중에 있을 때 제 안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녀는 산발적으로 아주 짧게 일어나는 신비 체험들로부터 신비적인 단계들로 이행했다: “지존하신 하느님은 아주 일상적으로 제게 고요의 기도를 허락하셨으며, 오래 지속되는 합일의 기도도 아주 자주 허락하셨습니다” (2절). 성녀의 겸손과 상식을 위해, 이는 놀라운 새로움을 구성했다. 그것은 거의 우려할만한 새로움이다. 성녀는 두려움의 순간들을 겪었다. 심지어 공포의 순간도 겪었다.

본 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으로 계속해서 강생 수녀원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인물들은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제시된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성녀 테레사의 한 친척이 등장한다. 성녀는 그를 일컬어 ‘거룩한 신사’라고 불렀다. 그는 다름 아닌 살세도의 프란치스코¹⁾였다. 그리고

1) 살세도의 돈 프란치스코(Don Francisco de Salcedo)는 성녀 테레사가 신비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무렵 가스파르 다사와 더불어 성녀를 지도했던 ‘거룩한 신사’(자 23,6-12 참조)였다. 그는 아빌라 태생으로 성녀의 친척인 아길라의 멘시아와 결혼했다. 아빌라의 성 토마스 수도원에서 도미니교회 신부들로부터 신학을 배웠으며,

그 곁에 또 다른 인물로 가스파르 다사²⁾라는 아빌라의 어느 본당 신부가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로 예수회 소속 젊은 수도 사제가 등장한다. 그는 갓 서품 받은 사제로 체티나의 디에고 신부였다.

성녀는 이 세 사람에게 의해 압박을 받은 상태였으며 여기에 더해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영혼과 관련된 사정들에 대해 여러 기회에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서전』의 첫 번째 소묘가 되었다. 그러나 이 첫 소묘는 많은 일들이 휘몰아치던 시기에 유실되고 말았다. 본 장의 주된 주제는 성녀의 삶에서 신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성녀가 대경실색했다는 점이다. 성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개했다:

- 1~5절: 은총과 두려움. 조언을 찾아 나섬.
- 6~14절: 돈 살세도와 다사 신부의 손에 있던 문제. 조언들(8~11절)과 반대되는 견해(12~14절).
- 14~18절: 체티나 신부의 지도 아래 평온해짐.

아내를 사별한 후 1570년 아빌라 교구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그 후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전속 사제로서 그곳 수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성 요셉 수녀원 창립을 비롯해서 성녀의 여러 창립 활동에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성녀 역시 그를 창립 활동의 협력자로서 중요한 시기마다 그에게 조언을 청하곤 했다. 1554년 당시 신비체험을 시작하면서 성녀 데레사는 이 신사와 가스파르 다사 박사에게 자신의 영혼 상태를 설명한 첫 번째 「영적 보고서」를 쓴 적이 있다(자 23,14, 이 보고서는 전해오지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성녀가 체험한 신비현상을 악마에게서 오는 것으로 잘못 식별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예수회원들의 식별을 다시 받고 충고해를 하도록 조언했다. 살세도의 돈 프란치스코는 1580년 9월 12일 임종했는데, 임종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수녀원에 희사하면서 수녀원 설립 당시 창립 미사가 봉헌된 허름한 ‘초기 소성당’ 자리에 번듯하게 새로운 성당을 짓도록 부탁했다. 현재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입구 오른편에 있는 이 성당은 소위 ‘성 바오로 성당’으로 불리며 생전의 공을 기려 성당 내부 바닥에 그의 유해를 안치했다.

2) 가스파르(Gaspar Daza) 박사를 말한다. 성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박학하고 경건한 신부였다. 성녀를 깊이 존경했으며, 얼마간 성녀의 고해신부가 되기도 했고, 성 요셉 수녀원 창립을 위해 성녀를 많이 도왔다. 1592년에 세상을 떠났다.

1. 새로움. 성녀가 대경실색한 이유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한다는 점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새 책, 다시 말해 새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의 삶이었고, 그 다음 기도의 제반 사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 이후 살았던 삶은, 제가 보기에 하느님께서 제 안에서 사셨던 삶입니다” (1절).

여기서 드러나는 새로움은, 성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 이상으로, 신비적인 은총의 횡수와 점진적인 증가에 있었다. 이러한 신비적인 은총은 더 이상 불시에 일어나 빨리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연장되는 가운데 성녀의 영혼을 변모시켰다. 성녀는 이 은총을 ‘고요의 기도’로 불렀으며 많은 경우 이를 ‘합일의 기도’라고 보기도 했다. 이러한 기도들은 『자서전』 14~17장에서 묘사된 제2단계 기도와 제3단계 기도에 해당된다. 성녀는 오랫동안 첫 번째 기도인 고요기 그지없는 추리 묵상 기도를 수련해 왔다.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부터 제2단계 기도와 제3단계 기도가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수없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이상하게도, 성녀는 여기서 추리 묵상 기도가 표방하는 많이 생각하는 것에서 자신이 말한 또는 경험한, “저 기도의 은총을 받고 아무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 것” (12절)으로 옮겨갔다.

우선, 이것은 성녀에게 놀라움을 일으켰으며,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점점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갈수록, 일종의 비참한 감정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곧이어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이 성녀

를 엄습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두려움이 커져서, 저는 이 문제를 함께 나눌 영적인 분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3절).

성녀가 느꼈던 이런 두려움의 돌풍은 당시의 암울하고 억압적인 종교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이 점에 대해 성녀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 무렵 악마에게 속은 여인들이 크나큰 미망(迷妄)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 터라, 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실제로, 성녀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시점에서 아주 가까운 시기에 사람들을 속이던 어느 수녀로 인해 상당히 큰 스캔들이 있었다. 그는 (코르도바의) 십자가의 막달레나 수녀로서, 이 수녀가 일으킨 스캔들은 스페인 전역에 퍼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성녀에게는 영적인 사정에 밝은 조언자들에게 호소해야 할 필요성과 자기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면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2. 3명의 조언자들과 3가지 평가

성녀는 이런 신비적인 삶의 문턱에서 3명의 젊은 조언자들에게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선량했지만,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아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셋 중에 한 사람은 평신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본당 신부였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회원이었다.

셋 중에 연장자는 평신도로서 성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녀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한 신사로서, 성녀와는 신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근 40년 동안 기도 생활에 열심했다.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니다. 성녀는 『자서전』

에서 그를 ‘거룩한 신사’,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영혼’, ‘축복받은 거룩한 분’ (6-7절)으로 불렀다. 성녀는 이 장을 통해 그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모습에 가장 잘 들어맞는 설명은 아마도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성녀는 그에게 자신이 겪고 있던 문제를 상의했다. 그러나 그는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성녀는 다른 두 조언자들과 만나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성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말았다: “어떤 일은 그분에게 악마의 수작으로 생각되어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절)(그로부터 많은 햇수가 지난 후, 성녀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던 점을 기억하기로 하자: “저는 그분이 모든 면에서 삶에 있어서 신세를 진 분이 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게 커다란 빛이 비쳐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많이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서간 142, 2: 1576년]).

두 번째 사람은 가스파르 다사 신부였다. 당시 그는 모범적인 사제로서, 사목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봉사에 있어서 아빌라 시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성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선량하고 착한 생활”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성녀는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를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했다. 다사 신부는 기꺼이 그런 성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해성사 밖에서 성녀를 도와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당시 다사 신부는 상당히 바빴기 때문이다. 그는 엄한 태도로 성녀를 대했다. 성녀는 그런 그를 보며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확실히, 만일 그분 이외에 다른 인도자를 얻지 못했다면 내 영혼은 약간의 진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9절).

돈 살세도와 다사 신부, 이렇게 두 사람은 성녀에게 서면으로 된 보고서를 요구했다. 그들은 이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리고 성녀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녀가 보기에 이는 모호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 “저는 그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고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거룩한 신사는 아주 놀란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친구와 자기가 판단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건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다시 말해,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녀는 그저 악마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성녀를 세 번째 인물에게 보냈다. 아마도 그는 기도에 관한 사정, 그리고 혹시 악마와 관련된 사안들을 알고 있는 인물로 추정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성녀는 갓 사제품을 받은 아주 젊은 예수회원인 체티나의 디에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러 갔다. 그는 아직 살라망카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으로, 잠시 아빌라에 왔다. 예수회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병약했으며 근거리에서 있는 벗이었다.

하지만, 디에고 신부는 성녀가 잠겨 있던 의혹의 바다에서 성녀를 끌어냈다. 또한, 그는 성녀에게 서면으로 된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읽었으며, 이를 통해 놀라우리만치 성녀를 잘 이해했다. 그리고 성녀를 확실하게 인도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저는 하느님의 참된 종이며 매우 현명한 수사님과 만나 제 영혼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영성에 관한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저를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제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은 틀림없는 하느님의

영이시지만...” (16절). “그분이 저를 지도하시는 데 쓴 방법은 저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 한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17절).

체티나 신부는 대학에서 새로운 코스가 시작하자마자 살라망카로 다시 돌아갔다. 성녀는 다음 장에서 이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일시적으로 개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개입은 성녀의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위기의 순간에 성녀에게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 첫째, 이 젊은 예수회원의 승인에 힘입어 성녀의 영혼에는 평온함이 깃들었다(반면, 다른 두 조언자들은 나중에야 그러한 사실에 승복했다). 둘째, 성녀는 자신의 내적 세계에 돌파구를 열어젖혔다. 성녀는 자신의 펜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신학의 세계에 다리를 놓았다.

3. 초기 작품들

성녀 데레사는 본 장에서 자신이 집필해야 했던 영성 서적들에 대해 암시했다. 이는 늘어나는 신비체험으로 인해, 성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동기에 기인했다. 반면, 외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를 상의했지만, 적절한 대답은커녕 당황스러워 하던 조언자들의 압박에 기인했다.

성녀는 고민 중에 깊은 위기 속에 잠겨 있던 때에,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바로 그 해에 두 번째 작품을 집필했다. “이런 답은 제게 격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어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5절). 이미 성녀는 서면으로 모든 것을 제시하는 가운데 충고해를 하면서 이를 쓰고자 했다. “충고해를 하기 위한 준비에 착

수하여 제 생애의 온갖 악과 온갖 선을, 요컨대 제 생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확실히 한 가지도 감추지 않고 다 썼습니다” (상동).

이렇게 집필된 성녀의 글은 고해사제에게 전달되기 전에 성녀 자신에게 많은 것을 허물어트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것을 마친 후에 저는 너무도 많은 악을 지닌 데 반해, 선이라고는 거의 없음을 보고 깊은 슬픔과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동). 그러나 이 작품이 그 수취인이자 젊은 독자인 그 예수회 신부에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성녀는 체티나 신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제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은 틀림없는 하느님의 영이지만...” (16절). 그러나 이런 종류의 문서는 통상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만다.

비록 당황스러웠긴 했지만, 이것은 성녀가 쓴 자전적인 초기 두 보고서의 운명이었다. 첫 번째 문서는 낭패를 본 데 반해, 두 번째 문서는 빛을 보았으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녀가 두 번째 문서를 집필할 당시, 이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화술(話術)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성녀의 첫 번째 영적 작품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 그것은 「영적 보고서」 1번으로, 이 일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1560년에 작성되었다. 이 작품에는 이미 신비 교육적인 광채와 힘이 넘쳐나고 있다.

4. 23장에 대한 메모

1)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에 관한 책: 성녀 데레사는 저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프란치스코회 영성가인 라레도의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de Laredo)의 작품인

『시온 산 등정』(Subida del monte Si6n)을 인용했다. 성녀는 이 책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한 페이지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표시된 책을 두 명의 조사관, 즉 돈 살세도와 다사 신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성녀 자신도 이 책도 이 두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수칙은 거둠 기도의 이론에서 ‘내적 고요’를 향한 영적인 방향성의 일부를 구성한다. 성녀 데레사는 이미 이 점을 오수나의 프란치스코가 쓴 『제삼 기도 초보』에서 읽은 바 있다. 오수나는 자신의 작품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성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한 장(제23논술 3장)을, 그리고 “세 가지 침묵 방식”에 관해 또 다른 한 장(제23논술 4장)을,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고요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에 관해 또 다른 한 장(제23논술 5장)을 할애해서 다뤘다. 여기서 성녀가 라레도의 책에 호소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성녀가 최근에 읽은 영적 독서이거나 손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성녀는 『시온 산 등정』 제2판본(1538년 출간, 또는 1542년 출간)을 활용했다. 라레도는 이 작품에서 “능력들의 침묵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영혼의 고요”를 위해 한 장을 할애했다(제3논술 8장). 그러나 여기서 성녀가 강조했던 것들은 “완전한 관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비신학의 권위와 유용함에 대해”(제3논술 27장) 다른 장과 분명히 관련된다.

(다음 호에 계속)

* 선교 *

돌아온 탕자와 장자궁자長者窮子 이야기

권상균(아기예수의 아우구스티노) 신부/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국 불교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걸쳐 상당한 발전을 하게 된다. 선종과 교종이 번갈아 가면서 보충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천태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중국 불교가 삼국시대에 이차돈의 순교로부터 불교가 전래되면서 원효의 미륵사상과 의상의 화엄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은 시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에 의해 완성된 선종(선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불교에서 법화경은 가톨릭의 신약 성경과 유사한 경전이다. 당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시기가 그리스도교 서기(AD) 전후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법화경의 내용과 신약성경의 내용에는 유사한 비유들이 많다. 법화경의 신해품(信解品)이라는 장에 장자궁자(長者窮子)와 신약성경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님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즉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님이 어렸을 적부터 익숙해져 있는 선불교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을 통해 부처가 된다는 선사상과 십자가의 성 요한의 내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 즉 하느님과의 합일 사상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내용은 인도(印度)적인 화려한 문학적 채색이 좀 지나치게 장황하고 중복해서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쿠무라 이치로 신부님의 소 논문을 통해서 신부님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어리석은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속아 아버지를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 근심에 싸인 나머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출한 아들을 찾는 동안에 지쳐서, 큰 도읍지에 거처를 정해 놓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였던 아버지는 그곳에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 정착하면서, 엄청난 부와 많은 노예를 가지게 되어 왕의 보살핌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의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가출한 아들을 하루도 잊지 못한 채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밤낮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리석은 아들이 가출한 지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아버지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나타난다. 아버지의 집 대문에는 화려한 막이 쳐져 있었고, 땅 가득히 꽃잎이 뿌려져 있었다. 승려와 귀족, 수많은 상인에 둘러싸여 금, 은으로 박혀 있는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자에 앉아 커다란 부채로 부채질을 받으며, 황금을 거래를 하는 장자(長者)의 모습을 아득히 볼 수 있었다. 아들은 그것이 자신의 아

버지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싹오싹 놀란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은 왕이나 장관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을 거야. 차라리, 빈민가로 가는 것이 낫겠어. 이런 곳에 머뭇거리다가는 잡혀 강제노동이라도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올 게 틀림없어.’ 라고 아들은 생각하고, 서둘러 도망치려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보고는 곧 알아채고 기뻐하신다. 하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막대한 황금, 보배, 금화를 상속 받을 자가 돌아왔다. 나는 몇 번이나 이 아들을 생각해 왔던가. 아들은 스스로 여기에 오지 않았는가? 게다가 나는 늙고 늙어빠진 노인이 되었다.’ 아들에 대한 큰 애정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아버지는 즉시 심부름꾼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버렸다. 아버지는 상황을 살피면서 심부름꾼들에게 너무 거칠게 굴지 말라고 명령하고, 겁에 질려 실신해 쓰러진 아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과 아들이 지금은 너무 신분과 처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였다. 심부름꾼들에게는 억지로 아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부탁하고 나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다. 아들은 그런 심부름꾼들의 태도와 말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곳을 떠나 빈민가로 들어갔다. 거기서 장자인 아버지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시켜 말하였다. “너희들은 일전에 여기 왔던 남자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두 배의 월급을 주고 일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화장실 청소라고 대답하여라.” 아들은 일단 안심하고 부자 아

버지 옆에 있는 초가집에서 살면서, 그 부자가 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 그 집의 천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때때로, 평소의 화려한 옷을 벗고, 일부러 더러운 옷을 입고, 손발을 진흙으로 더럽히고,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멀리서 말을 걸면서 다가와 무언가 가르침을 주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청소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일하게나! 월급도 두 배나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음식이건 옷이건 물건이건, 소금값이건 상관없다.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너에게 주겠다. 나는 늙었지만 너는 아직 젊다. 게다가 오물 청소까지 하며 온갖 일을 다 하였다. 게다가 너는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늘 충실하게 일했으며 교만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들어 쇠약해지면서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고 하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막노동을 했던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하인들아, 이리 오너라. 나는 중병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 놓고 아버지는 말했다. “네가 이 재산을 모두 받아 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재산의 소유주이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이 재산의 소유주란다.” 그런데 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은 그런 재산을 받고도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단 한 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고 초가집에서 살았다. 이처럼 고결하고 겸허한 아들을 본 아버지는 마침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왕과 대신, 마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모두들에게 말하였다. “사실 이 아이는 내 친자식이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가출한 지 50년 동안 나는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전부를 이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비로소 밝힙니다.”

여기서, 이상의 장자궁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부처의 자비 또한 이와 같다. 즉 여래 또는 부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인간을 성숙시켜 구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장자궁자' 의 이야기는, 다음의 비유 성경의 루카 복음서에서 보는 '방탕한 아들' 이라는 이야기와 지극히 유사하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기로 한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둘에게 나눠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전부 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났고 거기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지방에 심한 기근이 발생하여 그는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몸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밭에 보내 돼지를 돌보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메뚜기 콩을 먹어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아버지 집에서 그 많은 하인들은 먹을 것이 남아돌 정도로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길 떠나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자.’ 라고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

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몹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며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루카15.11~32)

불교와 그리스도교에서 즉 '장자궁자' 와 '돌아온 탕자' 의 비유는 그 취지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 어느 곳에서나 방황하고 곤궁한 방탕한 아들이 그 주역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적을 굳이 책망하지 않고, 큰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슬하로 받

아들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는 하느님의 큰 사랑을 확인하고 다른 하나는 부처의 대자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둘 사이의 두드러진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유사하고 딱 들어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 사이에는 단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모두 그 떠돌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들의 기쁨은 유례없이 컸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상이하여,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 목을 껴안았다. 또 즉시 값비싼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어진 형을 화나게 할 정도로 환대하고 있다. 다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적합한 일을 주고 점점 더 나은 인간성을 개발하기를 기다렸다. 형성적 단계가 차근차근 이끌려 높은 형성이 그의 위에 실현되었을 때 그에 걸맞게 그를 선택하였다. 모두,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지배했고, 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성이 지배하였다. 두 아버지의 대조는 또한 예수와 석가모니의 대조이기도 했다. 예수도 석가모니도 함께 “오라.” 라고 외쳤다. 그래서 오는 것이 우선 요구됐다. 회심을 먼저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예수의 길에도, 석존의 길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우선, 믿음의 일관성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나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길은 방황하는 두 아들처럼 서로 달라진다. 즉 한 아버지에 있어서는 감정이 풍부했고, 한 아버지에 있어서는 이성이 지배했다는 것이다. 돌아온 탕자는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정적 사랑’ 이라고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

고, 왕후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의 장자의 아버지 노릇을 하기까지, 가난한 아들을 길러낸 아버지의 사랑을 ‘이성적 사랑’ 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아 합당한 판단인 것 같지만, 이 두 비유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법화경의 ‘장자궁자’ 의 비유는 불교의 자비와 그 가르침의 초점을 훌륭히 나타내고 있는 비유로, 루카복음서의 ‘돌아온 탕자’ 의 비유가 의도하는 것과는 소재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이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감정과 이성만의 차이는 아니다.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인 ‘아가페’ 가 설명되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사랑의 무조건성’ 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다. 루카복음에는 방탕한 아들이 어떤 비참한 모습이 되어 버리더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즉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기쁨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채우게 된다. 언제나 아버지의 슬하에서 성실하게 지낸 형은 훌륭한 상속인이 될 아들이었지만, (루카 15.31) 아버지가 기쁨에 겨운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의 갑작스러운 귀가였다. 이것은 99마리의 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찾는, 착한 목자의 비유에 상응하는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이다. (마태 18.12; 루카 15.4,7) 하지만 법화경에 나오는 가르침은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으로 성장해 장자의 아들로 불려,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인간 형성’, ‘자기 형성’ 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구원임을 보여 주는 지극히 불교적인 비유이다. 가난한 대로, 천한 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천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드는 데

부처님의 자비가 있고, 불교의 구원이 있다. 불교의 구원은 그러한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여, 거기서 오는 무명(無明)의 미혹에서 깨어나 진정한 불자가 될 때까지 길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 아가페는 그러한 '자기 형성', '인간 형성'을 먼저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부자(父子)의 살아있는 관계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불편한 상황을 맞이한 형은 이 '부자 관계'의 주역이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자식, 그 자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부자 관계'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거기서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 완성을 가져오는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잃어버린 부자의 사랑의 관계, 다시 되살아나는 기쁨이 복음 안에서 전해지고 있다. 법화경의 '장자궁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인간성 개발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성적 자기완성이 설패되어 있는 데 반해, 루카복음서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부자의 페르소나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애의 '관계의 신학'이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여기서 아버지의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관계의 지극히 심오한 신비에까지 깊이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자식에 체화되어 있는 성부의 사랑을 볼 수 있다. 불교적 구원은 인간적 본성의 자기 형성, 자기 확립을 가르치지만 '실체의 영성'이며,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랑, 만남이라는 자타 관계에서 뿌리를 내리는 '관계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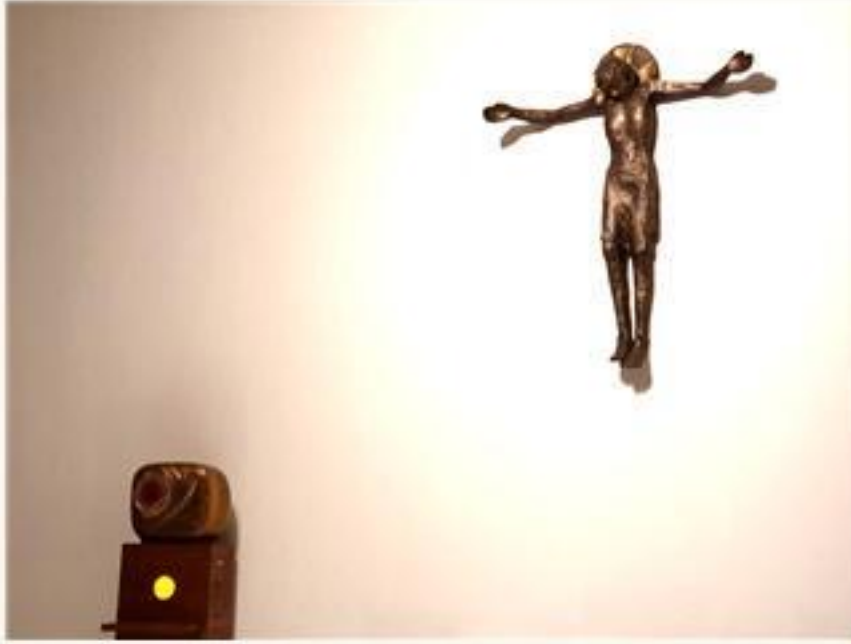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차이가 법화경의 '장자궁자'와 루카복음서의 '돌

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 드러나고 있다. 흔히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에도 중생 제도인 아미타여래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가르침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교에는 구약성경 속의 위대한 지혜 문학, 나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위대한 지혜의 사상,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는 한없는 가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사도 바오로는 힘 있게 나타내고 있다.(필리 3.8;에페 1.17;콜로 1.9)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구약시대 최대의 계약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다음으로 예수가 구약의 내용에 있는 이웃 사랑을 넓혀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마태5.43~48;루카 6.27~30;로마 12.17~21)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나아가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이어지는 무조건적인 이웃 사랑(마태 5.14)은 그리스도교만의 것은 아니다. 불도에 일생을 바친 수많은 조사(祖師)¹⁾들의 자비와 정열은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상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불교의 자비는 성경에서 설패하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한결같이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이며, 게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하나 없게 하는 일체 중생의 가르침을 설패한다. 이는 또한 불교학자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적 하느님의 사랑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 또 불교의 오래된 경전 속에는 인간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에 대해 거의 성경과 같은 가르침이 여럿 있다.*

1) 불교의 1종(宗) 또는 1파(派)를 세운 승려, 즉 후세 사람의 귀의와 존경을 받을 만한 승려이거나 1종 1파를 세운 승려에게 붙여지는 칭호

* 가르멜로 74-55길 *



늦게 피는 꽃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가끔 보면 제철을 지나 피는 꽃이 있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기다린 이들은 제철에 피지 않는 꽃을 보며 안타까워하곤 하죠. 하지만 철이 지나 핀 꽃을 보면, 늦게 핀 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보기 드문 꽃이 피어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철이 없고, 나잇값도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무시와 질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꽃을 피울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뒤늦게 꽃을 피우면 일찍부터 철이 들어 그 사람을 판단했던 사람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잘 관찰해보고, 살펴본다면 어느덧 꽃을 피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이 꽃은 꼭 성공해야 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피우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요? 아직 더 성숙해질 것이 있다면 그 꽃을 늦게라도 활짝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직 피워낼 꽃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공동체 이야기 *

청주 예수의 성녀 테레사 공동체 이야기

청주 예수의 성녀 테레사 공동체



아침저녁 제법 찬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조심스레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기도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재속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예수의 성녀 테레사 공동체 인사드립니다. 저희 청주 예수의 성녀 테레사 공동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1998년 5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2년 후면 어느덧 은경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청주지역에 살면서 대전과 충주로 나뉘어서 다니시던 회원들이 뜻을 모아 청주지역에 가르멜 재속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가용도 없고 버스도 자주 있지 않아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봉고를 대절해서 월모임을 다니셨어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월모임을 하는 유일한 공동체

창립 당시 교구청에서 월모임과 양성모임을 하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더 이상 교구청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교구 연수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오래가지 않아 그곳 사용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사회와 회원들의 실망과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님께 재속회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 본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기도 단체가 모임 할 장소가 없다니 안타까워하시면서 기꺼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날 우리는 집을 옮기고 이곳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그제야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본당이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청주 가르멜 재속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임 신부님과 재속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르멜 수도원과 동떨어져 있는 저희가 가르멜 정체성이 결여된다고 걱정하시는 신부님도 계셨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가르멜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종 회원에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저희 공동체는 선종한 회원을 위해 정성을 다해 연도 및 입관예절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장지 수행을 합니다. 몇 년 전 고성 가르멜 공동체 단독회원이 선종하셨는데 청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독신이라 가족이 별로 없고 고성에서 회원들이 오시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참사회와 협조 신부님께서 입관예절에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고성 재속회원들 대신 장례미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한마음으로 고인을 위해 많은 회원들이 장례미사에 참례하였습니다. 비록 살아계실 때에 한번도 뵈 적은 없었지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번은 충주 재속회 초대 회장이 선종하셨는데 장례 날이 구역모임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역모임 날짜를 미루고 장례미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 회원 중 오랫동안 뇌졸중으로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요양병원에서 투병하시던 분이 선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멜을 무척 사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한여름에도 두꺼운 갈색 한복을 늘 즐

겨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복을 벗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구역장이셨기에 저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역별로 연도를 바치고 입관예절에 함께 하며 화관과 망토를 입혀드리고 꽃으로 장식을 해 드렸습니다. 비록 오랜 투병 생활로 걸모습은 변했을지라도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은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장례 미사와 장지 수행에 참사회와 구역장이 운구에 함께 하였습니다. 장지에서 하관 예절이 끝나고 기도를 한 후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아무것도 너를' 을 부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본당 연령회 분들은 저희들을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한 3일간의 저희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독회원 방문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에는 단독회원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장님과 담당구역 참사만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독회원 대부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분들이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생활은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방문 가겠다고 연락을 드리면 간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며 무척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사제 어머니이신데 아들 사제를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몸이 아파 자식에게 누가 될까 염려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를 하느님 품으로 먼저 보내고 며느리와 아름다운 추억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면서 소일거리로 꽃을 가꾸시며 기도와 침묵으로 기쁘게 살고 계심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회원들이 보고 싶다며 또 놀러 오라고도 하셨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여전히 성무일도를 바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심을 많이 폼다 접어서 두꺼워진 성무일도서를 보고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재속회원으로 살아서인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계신 것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변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과 나누는 우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며 교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불림을 받은 신자들이다.(회헌 3조)

처음 가르멜에 지원했을 때 각자 나름대로 뜻과 희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노력

하며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은 양성을 받고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나눔을 할 수는 없지만 매달 소식지에 올린 회원들의 글을 읽으면서 고통 속에서 인내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기도하며 성령께 의탁할 때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었다는 체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청주 공동체는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한 편입니다. 어느 신부님께서서는 강의 중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도 없고 별 반응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충청도라 그렇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나이는 많아지고 일꾼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젊은 지원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피양성자들도 13명 있습니다, 청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복되신 가르멜 성모님의 전구와 도우심을 청하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 회원의 글 *

내가 널 사랑하리라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이른 아침 세우(細雨)가 내리는 연피정 가는 길은 비탄의 어둠이 동행했다. 수많은 생각이 오가는 하루, 한 생각이 찾아오면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는 망각은 일상의 삶을 암흑의 나락으로 추락시킨다. 종일 헤매며 허방을 던는 이승살이 그만 끝내 주시라는 아픔 대신 빗방울이 차창을 거슬러 오르며 울어준다. 참으로 못한 탄원을 빗물에 씻어주시라 청하며 옆자리의 빈 바구니에 나를 버리는 알뜰한 사랑을 담아본다.

내 안에 사시는 내 님에게
목숨아 무엇을 내드리겠나.
살뜰히 그 님을 피시려니
너를 버려야 하겠구나.
님 두고 내 사랑 또 없느니
차라리 죽어서 뵈고지고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 예수의 성녀 데레사,
<못 죽어 죽겠음을>(Muerdo porque no muerdo)

금요일 이른 새벽, 어둠을 가르며 일터로 향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 앞차의 불빛에 의지하여 조심스레 따라가던 프리웨이를 벗어나 짙은 안개에 휩싸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산길을 무의식에 의지하여 수도원을 향한다. 간간이 내리던 빗줄기는 고개 낡망에 이르러 거세지고 짹 짹한 밤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지경이다. 홀로 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등불이 되

어 뒤에 오는 누군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삶의 이정표임을 앞서가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벽 미사에 참례한다. 미사 후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바구니에 담던 날. 주렁주렁 열린 감들이 아래로 늘어지고 잘 익은 감은 새들의 성찬이다. 자매들은 감나무 밑에서 낮게 달린 감을 따고 사다리를 오르신 신부님의 자상하신 배려, 담을 넘어 드리운 감나무 한 가지 이웃의 관상용으로 남겨 놓으시는 넉넉함이 정답게 차오른다. 깨끗하게 세수한 단감이 발그레한 얼굴로 2년 만에 만나는 가르멜 가족을 기다린다.

환우를 방문하리라던 계획 대신 수도원 내정의 단감을 따느라 이슬에 흠뻑 젖어 돌아왔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섭리는 천양지차로도 가늠할 수 없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 들어 있는 나의 시간은 그분의 초대에 머무는 것임을 때때로 체험한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인천 수도원에서 총주 수녀원을 거쳐 드들강을 지나 빗길을 달리던 갑작스러운 초대도 행운이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수도원 현관 등불 아래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은 손님방에, 수사님들은...” 한 줄의 메모가 맞아주던 잔칫날 전야의 편안한 잠자리의 온기가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 있다. <마티아> <마리아> 이름표가 붙여진 방 앞에서 ‘아, 어느 부부가 방을 양보해 주셨나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미로운 빗소리에 잠겨 들었던 그 밤.

첫새벽에 들려온 목소리 “베드로 수사입니다.” 편히 주무셨느냐는 인터폰으로 전해지는 인사를 듣는 순간 절로 떠오르는 생각은 겸손이었다. 보이지 않아도 다가오는 존재의 신비는 현존이다. 밤비는 그치고 계절이 여러 차례 지나 찬바람에 흩뿌리는 빗길을 걷는다. 나중에서야 알아차린 부부가 예약한 방이 아니라 마티아 수사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던 어머니 <마리아>의 방이었음을, 가을과 겨울 사이 <예수>님 방 창가에서 쥐똥나무 열매에 달린 빗방울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여정처럼 나도 빗방울 마련하고 싶다. 가난한 처소에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양친께서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쉬실 수 있는 빈방 하나. 흰 눈 내리는 고요한 밤에 그분이 말씀하신다. 사랑하기 위해 아가로 이 세상에 오셨노라고. 오래전 새벽녘에 깊은 울림이었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 짙은 안개비가 품고 오는 나직한 노랫소리가 내 영혼을 휘돈다.

널 사랑했단 말이나 내가 사랑할 테니
널 위해 울지도 마라 내 영혼이 울고
있구나

·
·
·

널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널 사랑하리라
널 위해 울지 않아도 내 영혼은 울고 있구나
안개 낀 새벽 여명에 이별은 계속되었다
네게 박은 그 상처가 내 영혼의 못이 되었다
서러워 말아라 외로워 말아라
널 영원히 내 사랑할 테니

- 이필원, <내 영혼이> 중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는 사랑 초서, 내 영혼의 성 지밀한 궁방에 기도의 촛불을 밝혀 영원히 사랑하시는님을 생의 저물녘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하얗게 사워어 가는 것. 이 밤의 베일이 벗겨지면 아마포 곱게 접어놓고,님과 단둘이 그침 없는 천상항해를 시작하리라는 바람을 간직한 좋은 날. 요셉 아버지 돛대를 세우고 바다의 별이신 어머니 손수 돛을 달아 주신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마음마다에
평화와 기쁨을 뿌리며
쉬지 않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 회원의 글 *

아버지와 아들

반숙자 (성 요셉의 벨라뎃다)/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마지막 달력입니다. 어하다 보니 한 해의 끝자락에 섰네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 한 해는 본의 아님 은둔생활을 했고 미사에도 못 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행동반경이 좁아져서 집과 산책길, 그리고 멍석만한 채마밭이 놀이터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 동기간들도 만나지 못하고 성당 교우들과 친구들도 무고하려니 치부하고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원해지고 공연한 오해도 생겨서 성탄이 오기 전에 참회하고 보속하고 성사를 봐야겠다는 마음입니다. 12월이 화해의 계절이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우리를 위해 화해의 제물로 사셨습니다. 화해가 떠오르자 어느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되 살아납니다.

사도예절입니다. 망자를 둘러싸고 가족이 둘러서고 유리 칸막이 밖에는 성당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정성을 다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고별의 시간입니다. 한복을 곱게 입힌 망자에게 한 사람씩 다가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생전에 못 다 한 말을 간곡하게 하는 중입니다. 아내, 딸, 첫째 아들, 둘째... 여기서 화면이 멈춥니다.

1년 4남을 둔 고인에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두 띠동갑인 둘째 아들입니다. 고집이 센 것

부터 남다른 손재주가 있는 것까지

부자는 봉어빵인데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입니다. 청소년기에 서울 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녀 부모 사랑이 부족했던지 다섯 중 유달리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이 많았습니다.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일 때나 드문드문 만나도 꼭 탈이 납니다.

오는 날은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누구랄 것도 없이 한쪽에서 언성이 높아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을 뜨며 시끄러워집니다. 이유를 알아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가 자식마다 기름 값을 주며 먼 길 조심해서 가고 바쁘게 들 지내니 자주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유독 둘째만은 오지 말겠다고 트집을 잡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참고 있으면 누그러질 텐데 그 아들의 아버지인들 송곳 같아서 “드러워 못보겠네. 니 맘 대루 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명절의 피날레를 어정쩡하게 장식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다음 만나는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사이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천둥번개가 칠지를 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못한 자식들이 애달파하는데 유독 둘째만은 표정 없이 장례를 치르는 중입니다. 속에 쌓인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도예절

까지 그 상태로 온 것입니다. 슬쩍 바라보니 제 아내가 남편 손을 아버지 시신 위로 당깁니다. 그래도 꿈쩍 않고 뿌리치자 셋째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던 둘째 입에서 “아부지~...” 하더니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냥 울음이 아닙니다. 창자를 도려내는 애달픈 절규입니다. 싸늘한 아버지가슴에 엮드려 몸부림을 칩니다. 모여 섰던 사람들이 그 모양을 지켜보며 훌쩍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회를 보던 연령회장님이 “자, 그만 하세요. 다음 분 인사하세요.” 사도예절이 끝날 때까지 통곡하던 아들의 마음을 짚어봅니다. 생전에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지 못한 후회, 병환 중에 따뜻하게 보살펴드리지 못한 후회가 그토록 애절하게 아버지를 부르게 했을 것입니다. 영혼이 거기 머무르셨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아들이 울지 마라, 사랑한다고 어루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루카 15, 6)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하느님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잔치를 하고 기뻐 뛰실 테지요.

해가 짧아져서 이른 저녁을 먹고 나면 세상이 고즈넉합니다. 아파트 창으로 보이는 먼데 마을의 불빛이 다가오고 개 짖는 소리도 아련히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데 왜 이렇게 허허로워지는지요? 올 사람도 없고 이 시각 찾아갈 사람도 없는데 문밖에서 서성이는 이 마음은 무엇인지요?

커튼을 내리고 기도 상에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앉아봅니다.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붙잡아 촛불 앞에 앉히고 저를 바라봅니다. 걸은 멀쩡한데 살살이 드러나는 티,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끈질긴 이기심. 그때 그 자리의 무능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타박한 분노,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못난 자신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내가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어찌 하느님께 화해를 청할 수 있을까요?

25세 젊은 나이에 하느님께로 떠난 성녀 엘리사벳의 말씀이 울려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되돌아 가는 것을 피하여 수방에서는 자기 앞에서 살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살라시는데요. 나이 탓인가 조용한 시간이 오면 과거로 돌아가 가슴을 치는 날이 많거든요. 자기를 잊어야 진정으로 하느님을 자신 안에 모실 수 있다고요. 83년 후질러진 저를 잊게 해 주세요. 주님.

밤은 깊어가고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이 침묵을 타고 아버지를 뵈기를 소망합니다.*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나를 지키는 문, 경계선!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바람처럼 불어와 바람처럼 지나갔던 존재, 어렴풋이 바라봤던 존재의 힘, 내겐 우렁각시였다. 지쳤을 땐 위로, 아팠을 땐 치유, 슬펐을 땐 기쁨, 두려울 땐 평화, 분노할 땐 안정, 그리고 어둠일 땐 빛이었다. 산티아고 길 내내 나의 내면에 들어와 씩박하게 ‘도장 꼭!’ 흔적을 남겼던 우렁각시, 누구였을까?

대림시기를 맞아 소화 데레사 성녀의 생가인 프랑스 알랑송의 추억을 회상해보았다. 독특했던 성전의 구조, 제대 아래엔 아기예수가 누운 마구간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다. 감실의 문양이 아기예수님이다. 아기예수(소화)의 데레사 이미지를 살린 듯 했다. 성녀는 예수님의 강함보다 약함을 더 사랑한 여인이었고, 작고 약한 아기를 품은 감실이였다. 미사 내내 아기 데레사의 요람에 눈길이 갔다. 작고 귀여운 침대, 구유였다.

그날,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는 아기예수님이였다. 가슴에 안아드리며 ‘잘 사랑하고 돌봐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 성체조배 역시 아기예수님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야말로 소화 데레사가 아기예수님의 신심을 뿌리내린 성소의 못자리였던 것이다.

아름다운 감실, 소화 데레사!

그녀의 마음엔 언제나 생명의 빛으로 가득했다. 품어 안은 아기가 잘못될세라 언

제나 깨어 돌보면서 자신도 점차 닳아갔던 거다. 스스로를 작고 약한 어린이라고 생각하며, 크고 강하고 완전해지려고 애쓰지 않았다. 어린 생명이었지만 존재로서 빛이고 평화이며 사랑이신 아기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산티아고 순례 길의 첫 발걸음을 떼면서, 아기예수님을 영하듯이 영성체를 했고, 아기예수님의 문양을 새긴 감실을 바라보며 성체조배를 했다. 내가 감실이 되어 걸으리라 다짐했고 아기예수님을 정성껏 돌보며 빛의 길을 걸었다. 지쳐 쓰러지거나 멈춰 쉬어야 할 때마다, 내가 품은 아기께서 위로와 치유,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생명의 빛을 뿜으며 우렁각시가 되어준 것이다.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는 감실인 자신을 항상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어놓지 않으셨다. 행여 주변에서 누가 힘들게 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도, 상대가 눈치채지 않도록 열린 감실 앞 예수님께로 도망치시며, 그를 위해 희생기도를 바치셨다. 상황이나 사건에 휩쓸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면, 아기예수님을 품은 자신(감실)이나 또 다른 감실인 상대에게 해가 될 것을 아셨던 거다.

설령 자기 부족함으로 내면에 어둠이 깃들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 드리며 빛으로 극복하셨다. 아울러 이 세상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내면의 아기예수님과 교감하고 성장하는 보석으로 삼으셨다. '이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말이다.

대림시기에 나는 대대적인 감실(영혼, 마음) 청소를 해야 한다. 내 작은 한계와 노력해도 안 되는 결점들 때문에 실망과 낙담이 반복되더라도 괜찮다. 그런 나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곧 대림주간의 축복일 테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엔 뭐가 있을까?

감실! 아기예수님을 품어 안아야 할 내 마음의 공간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하는 건 내 몫이다.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문을 열어준 마구간 주인의 선택은 참으로 옳았다. 마구간에 들인 초라한 행색의 임산부, 그녀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셉은 하느님의 양부가 되었다. 구유는 금세 아기예수님을 품은 거룩한 감실이 되었다. 반면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집이라도 사람을 잘못 들이거나 나쁜 기운이 있는 물건을 들여 오염시킨다면 더 이상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없다. 내 마음의 문도 그렇다.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어선 안되겠다.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듯이, 내 마음의 문에도 파수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다. 벤츠가 한 대 서 있다. 주인이 문을 반쯤 열어놓고 주차를 해 놔다. 지나가던 사람이 휴지를 한 조각 차 안에 던진다. 이튿날, 행인이 차 안에 휴지가 있는 것을 보고, 가방에 있던 쓰레기를 꺼내 던진다. 뒤이어 계속 차 안에 쓰레기를 버렸고, 나중엔 벤츠가 쓰레기차가 되어 폐차시켰다. 차 문을 열

어놓은 차 주인의 실수로 고급 승용차가 쓰레기차로 둔갑한 거다. 행인들은 차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 영혼의 집,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로. 내게 착한사람 콤플렉스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자기를 단단히 지켜야 한다. 자신의 약함을 권위와 힘에 복종시키고는 하느님께 희생했다고 합리화하려는 사람, 그래서 타인이 내 뺨을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을 거르지 않고 내 것 인양 받아들여 내면을 감정쓰레기통으로 만들기도 한다. 내가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허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느님의 성전이고, 심지어 아기예수님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감실인지를 안다면 말이다. 더러운 마구간은 아기예수님께 문을 열어줌으로써 거룩한 감실이 되었고, 값비싼 벤츠는 문을 열어둠으로써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다.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존재는 남이 나를 함부로 하거나, 아무것이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대림 시기, 감실로써 나는 무엇을 들여야 하나? 빛이며 생명이신 아기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나? 아직도 세상과 피조물이 던지는 쓰레기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려나? 데레사의 생가에서 봤던 제대 감실의 문양, 아기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성녀께 도움을 청해본다.

성녀 소화 데레사여! 감실인 제 몸과 마음을 당신처럼 순결하게 지켜주시어, 생명의 빛, 평화의 빛으로 역동하게 하소서. 아멘.*

* 회원의 글 *

예수님 저는 안 될까요?

이은미(예수 성심의 카타리나)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종신서약 준비 피정 때 보여주신 '거룩한 여정' 에서 올리베따노 수사님의 말씀 중에서 "나는 안 되겠니?" 를 도용했습니다. 종신서약 준비 피정 중 가르멜의 삶뿐만 아니라 제 인생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마치 임종하는 사람처럼... 재속 맨발 가르멜회에 들어온 지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단순서약 때 "주님 붙어 있게만 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쓰나미 같았던 제 삶의 고통 속에서도 제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가르멜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편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년의 외국생활 동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지만 공동체에서 예외였기에 너무 죄송하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너무도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을 지도신부님, 회장님 그리고 참사회를 생각하며 이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음을 다짐했고 이 다짐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 늘 일깨웠습니다. 더 이상 예외는 안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도, 캄캄한 삶의 굴레에서도,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몸이 굳고 손발이 쥐가 나 주무르면서도 저는 가르멜의 여정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대결심을 한다고 다짐했어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정신기도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모님과 사부님의 배움을 계속하면서 최

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주님의 빛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가르멜 여정과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비 온 뒤 땅이 굳어지기를 기다리다 제가 공중분해 될 것 같습니다." 하며 "이런 삶이 은총인가요? 제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악을 썼을 때 주님께서서는 "너 많이 힘들구나!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너 나보다 더 힘드니?"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줄 수 없기에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억울해도 주님만큼 억울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큼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자가면역에 의한 원발성 담도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고 2년 생존율이 20%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2년을 지나 3년을 향해가고 있으니 저의 하루하루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 주님 앞에 나아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게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일원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가는 여정' 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남은 삶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 속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될까요? 제가 당신 곁에 머물러도 될까요?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당신을 안아드려도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망토가 입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

* 회원의 글 *

사랑이신 주님!

장경희(예수의 프리피나)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인지? 저에게는 늘 숙제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돌고 돌아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가르멜 공동체를 통하여,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피정을 왔을 때는 사부이신 요한 수사의 영성에 푹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주위의 풍경 속에서 그 당시의 요한 수사를 만날 수가 있었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 나무들, 이름 모를 풀마저 아름답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 없는 풀이어도 좋으니 가르멜 정원에 뿌리를 내려 여정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주님!

어제는 3년 전과는 다르게 수도원 대성전을 들어서는 순간에 마주보이는 정면에서 맑고 밝고 고운 모습으로 아우라가 비치는 아름다우신 성모님께서 아들을 안으시고 저를 따뜻이 맞아주시는 듯했습니다. 성전 안은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많이 더웠었지만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햇살들로 따사로운 봄처럼 포근하게 느끼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사

중에 당신의 은혜로 저의 발걸음이 가르멜 정원 입구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울타리를 통해 보이는 정원 속에는 잎사귀가 풍성한, 잘 자란 정원수들이 가득 차 있었고, 생기가 도는 싱그러운 향기로움과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정원 앞에 서 있는 그런 제 모습 말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가르멜 공동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양성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은총으로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던, 돌처럼 굳어 있었던 저의 마음을 일구어 올 수 있었습니다. 가르멜의 틀(정원)이 만들어져 가고, 한 걸음만 들어가면 정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심은 어둔 밤을 걸어가며, 제 자신과의 내적 싸움과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하며,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종신서약을 위해 피정에 초대해주신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곳에 당신의 사랑을 가득 채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당신께 은혜 청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피정 기간 동안 제 마음과 시간을 봉헌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인천 가르멜 수도원에서 프리피나 드림

2022년 2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32장 해설:**
이것이 완전한 관상이다

1. 회고적인 시선

우리는 앞의 여러 장들을 통해 예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슴에 품으셨을 아들로써의 느낌을 공유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청원을 드렸다.

1)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2)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3) 그분의 나라를 청했다. 이제 우리는 겐세마니의 예수께서 당신의 뜻(의지)을 온전히 봉헌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뜻(의지)을 그분께 봉헌해야 할 것이다.

세 개의 청원이 점진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우리는 구송기도(“아버지”라 부름)에서 거둬 기도(이 호명을 내면화하는 단계) 그리고 관상적인 고요(“그분의 나라가 오시며”)로 나아간다.

완전한 관상을 시작하는 것은 “생활한 샘물”(19장)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샘에 도착하는 것은 “합일”이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2. 강독을 위한 열쇠

여기서 우리는 성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열어주는 열쇠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1) 성녀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의 청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성녀는 이 말이 갑자기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청원을 바탕으로 나는 비로소 당신의 하늘에서 그랬듯 나의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다. 데레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만일 하느님께서 미리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2) 만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서 성부께 청하신 “이루어지소서”를 말씀드리기로 하자.

성녀 데레사의 교육적 수칙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과 친교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는 이와 연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미리 “아버지의 나라”를 청해 주셨다. 우리가 봉헌할 때 그분 또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다.

이렇듯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감정의 교류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빈곤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3) 성녀는 자신이 해설하고 있는 이 청원을 기도화(祈禱化)했다는 점이다

성녀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기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기도가 선행됐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녀는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를 정성껏 바쳤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을 느낌에 우리를 열어젖히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독자는 성녀가 기도하던 순간들을 읽는

가운데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1, 2, 4, 10절) 본 장에서 제시한 관상 기도 속에 자신이 이미 잠겨 있음을 느낄 뿐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성녀의 “실제적인 현존” 체험에 보다 근접하게 될 것이다 (13절).

3.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자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어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통째로 선물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기도」가 가르치는 이 청원의 완전한 본보기는 예수께서 겟세마니에서 하신 기도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를 동반한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성녀는 이 기도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한 장의 카드로 올인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께 이 청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여기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즉 두려움을 갖고 **표면적으로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것이다.

성녀는 여기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를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당신의 뜻에 우리의 뜻을 두는 것, 그리고 피조물을 이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9절).

이렇듯 자신을 통째로 드리기 위해서는 **일대 결심(一大決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매사에 당신 뜻대로 하시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서는 **결단코**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

이는 그분이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통째로** 내어줄 수 있기 위함이다. 이것이 아니라

면 **결코** 생활한 샘물에 이를 수 없다.

4. 완전한 관상의 선물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 드림

“이것이 바로 완전한 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관상은 성부께 자신을 선물로 내어 드리는 데서 따라온 결과일 뿐이다. 특히 그것은 의지의 뿌리에서부터 이루어진 봉헌을 의미한다. 결국 완전한 관상은 그분께 자신을 통째로 내어 드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은총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신께 진심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를 드린 이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다.

성녀는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한 관상이 내포한 세 가지 근본적인 측면들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1) 그리스도와 보다 완전히 동화되는 것
기도하는 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부께 “당신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는 이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

2) 하느님과의 깊은 합일

기도하는 이의 “성화(聖化)” 과정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사건은 오직 합일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러나 이 성화는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신비적 관상의 끝없는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했다. “여러분의 노력과 근면으로 여기에 도달하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절).*

수도회 소식

청원자 단옥량 베드로, 남윤성 사도요한 형제 착복식

광주 수도원에서 청원기를 보내고 있는 단옥량 베드로, 남윤성 사도요한 형제가 12월 10일에 청원 착복식을 합니다. 두 형제가 수도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강의 주제	강사
12월 10일	십자가의 성 요한과 성모님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백신접종 여부)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가르멜 영성 특강은 3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원회 분들과 올 한해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1월은 쉽니다)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성시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일시	12월 18일
주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구속(降生救贖)의 신비
지도	박종인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찬미 예수님!

수도회를 위해 미사예물, 선교 후원금, 후원금 등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소득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할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간편인증서 등
 2. 상단 My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클릭 - 전자 기부금 영수증 클릭 - 휴대전화 번호 등록
-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1월 - 5월은 7월말에, 6월-9월은 10월말에, 10월-12월은 익년도 1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합니다.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010-6305-5088로 문자 연락 바랍니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기 힘들신 분들은 종이 영수증도 함께 발행하므로 010-6305-5088로 문자, 전화 주시거나 각 공동체 총무참사님들에게 신청 바랍니다.

항상 가르멜 수도회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랍니다.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재속회 소식

종신서약

- * 인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0일
 - . 회원: 변상순 천주자비의 데레사
이경희 삼위일체의 안나
- *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0일
 - . 회원: 김선진 사도의모후의 마리아
김진영 하느님자비의 카타리나
노희영 예수자비의 첼리나
이민석 성 요셉의 알렉산더
양재연 예수기쁨의 안젤라
- * 인천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7일
 - . 회원: 권남현 하느님자비의 젤마노
임성미 예수성심의 마리아벳
- *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7일
 - . 회원: 손애선 겸손의 루시아
정승준 십자가의 프란치스코
- * 뉴욕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7일
 - . 회원: 손진희 삼위일체의 글라라
곽데레사 성령의 데레사
- *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0일
 - . 회원: 김애경 십자가성체의 마리울리안나
이은미 예수성심의 카타리나
박미연 아기예수의 노엘라
정은숙 천주자비의 카밀라
김은옥 성모성심의 미셸
이주희 십자가예수의 체칠리아
임재신 부활의 요안나
정은영 예수의 세실리아
- *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4일
 - . 회원: 김유주 사랑의 제노베파
변인옥 부활의 울리안나
정안나 의로움의 안나
박선영 사랑의 헬레나
- *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7일
 - . 회원: 장경희 예수의 트리피나,
이영근 마리아요셉의 바울라,
김미경 성모성심의 유렀다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종신서약



인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종신서약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종신서약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 종신서약



인천 성 요셉 공동체 종신서약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종신서약



뉴욕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종신서약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종신서약

은경축

* 인천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6일
- . 회원: 고명 성모성심의 모데스타
김갑수 성모성심의 세레나
박월녀 티없으신 성모성심의 안젤라
윤옥자 가르멜산의 세실리아
신정숙 아기예수의 데레사
장춘희 천주자비의 리오바
강영희 아기예수의 소화데레사

*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베네딕타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2일
- . 회원: 이광분 예수성심의 루시아

* 대전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3일
- . 회원: 김영철 성십자가요한의 스테파노
남주연 예수성심의 마리안나
김이상 예수성심의 아녜스
김영희 가르멜의 세실리아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24일
- . 회원: 이경자 예수성체의 요안나
최영숙 예수마리아의 안젤라
이복순 아기예수의 비비안나
박정숙 성모성심의 가타리나
조혜경 십자가의 마리아

* 대구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 날짜: 2021년 11월 08일
- . 회원: 김연옥 성모성심의 헬레나
박재영 예수성심의 안나
정경자 성모성심의 데레사



서울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은경축



대전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경축



인천 성 요셉 공동체 은경축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경축



대구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은경축

*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에서 온 편지

+ JMJT

가르멜산 등반 여정을 함께 하는 재속 맨발 가르멜 회원님들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 멈춤’의 시간들 속에서 두려움과 생소함이 이젠 익숙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익명의 천사들의 헌신에 세상은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음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더더욱 저희의 소식을 알리기를 주저했기에 처음에 운을 떼 이후 몇 개월간 많이도 망설였습니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와 저희 서울 가르멜 수녀원이 가르멜의 성모님의 망토 아래 초창기 때부터 깊은 신뢰와 상호지지를 함께 쌓아온 수도 가족이기에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기가 더욱 주저되었습니다.

그동안 4개의 수도원을 설립해 오면서 정작 저희의 터전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1962년에 혜화동에서 이곳 수유리 수도원으로 이사온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지붕이 새어 1층 방까지 양동으로 물을 퍼내는 것은 비닐과 모래주머니로 막을 수 있었지만 누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석면으로 뒤덮인 전선이 큰 화재의 온상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에도 지난 20여 년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게릴라성 폭우로 점점 비 피해를 겪으면서 배수관이나 전선을 교체하려 해도 너무 낡아 뒷감당이 안된다고 업자들이 손을 떼는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이미 우리 수도원을 노후건물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구청의 관계자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건축가들에게 수차례 의뢰하고 건축회의를 거듭한 결과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저희의 상황으로 보면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절감합니다. 이 큰일을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재속회원님들께 도움을 간청하려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희와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실 재속회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와 사랑이 우리 재속회원님들과 가정에 풍성히 내리시기를 빕니다.

직접 문의 : 010-9053-1489

seoulcarmel@hanmail.net

건축 계좌번호 : (재)천주교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국민은행 354601-04-171266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55길 67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 드림

* 회원의 글 *

성 탄

- 예수 성탄을 기다리며 -

이정미 (아기예수의 헬레나)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이천 년 전 하느님의 아드님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건만
마구간밖에 누울 곳이 없었다지요

지금은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에
휘황찬란한 불을 밝혔지만
온통 죄와 공해로 오염되어
죄 없는 아기 받아 낼자리
찾기 어렵다지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
준비하고 기다린
저희들 마음 안에 자리하세요
나름대로 잡초 뽑고 먼지 쓸어내고
조출하게 맞이할 자리 마련했어요

편히 오시어
저희들 마음 온통 차지하도록
무럭무럭 자라셔야지요
또 다른 예수로 만들어
세상에 파견하셔야지요*



Del Verbo Divino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말씀'
몸 가진 동정녀
저기 길에서 오신다
그 쉬실 곳 드렸으면 !

- 십자가의 성 요한 -